

98 수출입 실적 및 99 전망

기획과

98년 수출 전년대비 47% 증가

98년 항공우주분야 수출액은 1,037백만불로 97년 708백만불에 비해 약 47%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완제기 분야가 97년에 이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노후항공기 매각으로 97년에 비해 약 46%가 증가한 744백만불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MD-82, B747-200을 포함하여 15대, 아시아나항공이 B747-400을 포함하여 3대 등 총 18대를 매각하였다.

엔진분야는 엔진부품 수주확대와 해외정비물량 증가에 힘입어 삼성항공을 선두로 하여 대한항공, 한국로스트웍스, 한국화이바 등에서 PW, GE, RR등을 대상으로 97년에 비해 약 35%증가한 69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세계항공산업 호조에 따라 기체 및 일반부품 분야는 Boeing 및 Airbus 기종의 동체 및 날개 부품 등의 수주 증가와 우주부분의 Globalstar 및 무궁화위성 3호 부품의 수출로 97년 대비 51% 증가한 22백만불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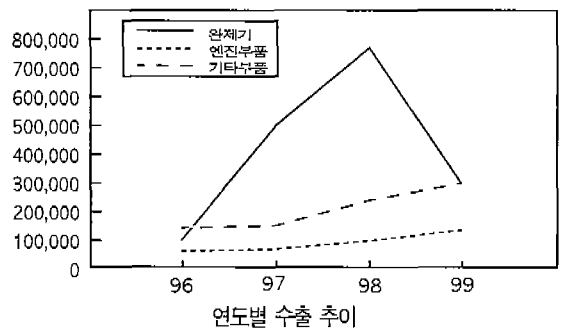
99년 올해는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항공기 수요의 감소로 세계 항공기 시장이 위축되고 완성기 업체의 부품 생산단가 인하 정책으로 수주 활동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기체 및 일반 부품 분야는 신규 수주 물량 감소와 우주분야의 Globalstar 물량 감소가 예상되나 기 수주물량 수출로 전년과 비슷한 220백만불의 수출이 예상되며 엔진분야는 부품 및 해외 정비물량 수주 증가로 98년에 비해 오히려 43% 증가한 100백만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삼성항

공이 최근 미국의 터보 엔진 제작회사와 향후 15년간 500백만불 규모의 터보 엔진 압축기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 완제기는 노후 항공기 매각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올해는 97년 및 98년에 비해 대폭 줄어든 240백만불 상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수출액도 98년 대비 46% 가량 감소한 563백만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별 수출 실적 및 전망 (단위:천불)

구분	'96	'97	'98	'99(e)
완제기	101,900	508,615	744,525	243,000
엔진부품	47,087	52,032	69,985	100,192
일반부품	158,230	147,391	222,426	220,162
계	307,217	708,038	1,036,936	563,354



98년 수입 전년대비 53% 감소

98년 항공우주분야 수입액은 788백만불로 97년 수입액 1,663백만불에 비해 무려 53%나 감소하였다.

부분별로는 완제기 분야는 정기 운항사들이 구매에서 임차로 도입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대형 여객기의 실제 수입은 전무하였고, 다만 관공서 및 부정기 운항사들의 헬기 수입으로 97년의 910백만불에 비해 95% 이상 감소한 43백만불에 그쳐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엔진분야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민수기 정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품 수입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삼성항공 등에서 KFP, UH-60 군수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품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97년 대비 22% 감소한 201백만불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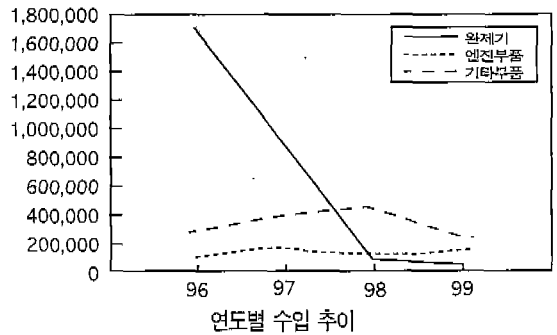
기체 및 일반 부품 분야에서는 항공 4사의 KFP, UH-60 등 막바지 단계의 군수사업 물량과 수출 증가에 따른 원자재 수입증가, 그리고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97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 543백만불의 수입액을 보였다.

99년은 KFP, UH-60사업이 종료되는 해로 KT-1 기본훈련기 양산, KTX-2 고등훈련기 체계개발 도입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원자재 수입액은 대폭 감소하여 98년 대비 60% 수준인 320 백만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완제기 분야도 현재로서는 대형 여객기 도입 계획이 없는 상태로 관공서 및 부정기 운항사들의 간헐적인 헬기 도입 등으로 98년 대비 51% 감소한 20백만불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엔진분야는 KFP, UH-60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원자재 도입으로 98년 보다 13% 증가한 220백만불 정도로 전망된다.

부분별 수입 실적 및 전망 (단위:천불)

구 분	'96	'97	'98	'99(e)
완 제 기	1,663,774	915,517	43,529	21,200
엔진부품	143,367	256,642	201,240	226,584
일반부품	349,768	491,902	543,199	320,031
계	2,156,909	1,663,881	787,969	567,815



무역수지 균형 유지

전체적인 무역수지를 볼 때 96년까지 매년 2,000백만불에 달하던 무역적자 규모는 점차적으로 그 폭이 감소되어 올해는 수출, 수입이 거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IMF 등의 영향으로 완제기 수입은 급감하고 중고기 매각 증가가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생산에 의한 수출도 96년 200백만불 수준에서 99년에는 300백만불 수준으로 증가하여 내수 위주 였던 항공우주산업이 점차 수출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수출 물량 수주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올해 이후에도 내수 대비 수출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망된다.

